

“순도 100%리얼” 딸의 연애를 흠쳐보다



‘내 딸의 남자들’이 시즌2로 돌아왔다. 새로운 MC들과 아버지가 합류하면서 더욱 강화된 ‘라인업’을 자랑하는 ‘내 딸의 남자들’은 과연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16일 서울 이태원 카페에서 E채널 ‘내 딸의 남자들’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신현준, 이수근, 김희철, 소진, 김태

내 딸의 남자들 2, 강화된 라인업으로 돌아와 김희철·소진 MC 합류 세대 간 이해도 높아

원, 장광, 박정화, 배동성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내 딸의 남자들’은 딸의 연애가 언제나 궁금하지만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관동과 상자를 여는 ‘딸의 연애 파파라치 토크쇼’다. MC 신현준과 이수근이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이끌어지며, 김희철과 소진이 새롭게 합류해 딸과 딸의 남자를 마음껏 흠쳐준다. 새롭게 합류한 김희철과 소진은 사람은 20대~30대 딸들의 일상과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 보다 솔직한 토크로 세대 간의 이해도를 높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막강 콤비로 떠오르고 있는 이수근과 김희철은 유쾌하게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며 화제에 오른 분위기 속에서 첫 촬영을 이끌었다. 시즌에 이어 시즌까지 MC를 맡게 된 신현준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많이 듣는다. 내 딸의 남자들을 통해 보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깨지게 됐고, 한 딸의 아버지로서 ‘중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실에 우왕청상환이 있는 건 저희밖에 없을 것 같다. 아버님들의 표정 때문에 많이 놀라고 자주 눈치를 보게 된다. 특히 시즌

보다 시즌2가 더 세졌는데, 그 이유는 시즌이 데이트였다면, 시즌2는 데 놓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오더라. 장광의 따님 같은 경우는 ‘직진녀’라고 할 정도로 거침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수근은 “아버지들의 실제 모습과 영화 속 캐릭터가 등장한다. 특히 장광의 경우 영화 ‘노가타’ 속의 모습이 자주 나오고 그러다 실제와 숨겨진 속안에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재미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현준은 “순도 100% 리얼이다. 저도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이야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딸들을 보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느 순간 ‘소통이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더욱 강력해진 MC에 맞서는 아버지의 입담도 짚어볼까. 시즌1에서 시청자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김태원 부녀가 다시 한 번 출연하며, 약역 전문 배우로 유명한 장광과 박정화 부녀가 출연해 걸출한 입담을 과시한다. 이들은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딸 앞에서선 어린 반전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방송인 배동성 부녀 또한 출연을 결정했다. 배동성은 제2의 신혼생활로 연예계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에서 딸의 연애를 지켜보겠

다는 각오다. 새롭게 합류한 장광은 “물론 저희 딸의 실체를 알게 돼서 반갑고 기대가 된다고 말할 했고, 박정화는 “방송을 보니 너무 힘들더라.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보려고 하고 있다. 장광은 “제가 놀란 것은 정말 제 딸은 남자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다. 놀랄 것이 얇아 겹겹이 나오는데, 아빠로서 걱정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딸을 결혼시키겠다. 좋은 아씨가 부각이 돼서 예비인 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쁜 한 바람을 드러냈다. 박정화는 “내 딸의 남자들”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딸을 2살 때 독립을 시켰다. 친구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의외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유롭게 잘 살출 있었는데 의외로 허덕이더라”며 “딸의 모습을 응원하게 됐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배동성은 “남자친구와 뽀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벌써 어른이구나 싶었다. 인격체이자 독립체로 봐 줘야지 어린 내 딸로만 바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촬영에 임한 소감을 전했다. 딸의 남자친구인 조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김태현은 “조위라는 친구에게 제가 느끼는 점

‘범죄도시’, ‘남한산성’과 16만↑ 차이...적수없는 흥행



‘범죄도시’가 ‘남한산성’과 격차 벌어지게 돌입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13만 2491명의 관객

누적 관객수 364만 4175명을 달성하며 2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번 기록이 눈에 띄는 건 ‘범죄도시’가 지난 15일 ‘남한산성’의 누적 관객수를 따라잡은데 이어 그 차이를 더욱 벌이며 적수 없는 흥행 질주 중이기 때문이다. ‘범죄도시’와 ‘남한산성’의 일일 관객수 역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범죄도시’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걸 감안하면 굉장한 흥행력이다. ‘남한산성’에 비해 처음 시작한 감독, 출연진 등 모든 면에서 인지도가 떨어졌지만, 통쾌함 하나로 입소문을 일으키며 대박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다. 오는 19일 ‘대장 김창수’, ‘마더!’ 등의 신작들이 대거 개봉하긴

하지만, 당분간 ‘범죄도시’의 흥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내 400만 관객 돌파도 잡혀진다. 뿐만 아니라 ‘희생부활자’는 일일 관객수 6만 1674명, 누적 관객수 24만 1658명으로 3위의 주인공이 됐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이날 하루 동안 5만 6570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22만 4084명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킹스맨: 골든 서클’은 일일 관객수 5만 2430명, 누적 관객수 481만 418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기세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2017년 정월 영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는 기쁨을 토했다. 한편 ‘범죄도시’는 2004년 하얼빈에서 넘어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형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괴물 형사들의 조폭소탕작전’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현재 절찬 상영 중이다.

슈퍼주니어, 이번 컴백이 특별한 이유



슈퍼주니어는 네이비 V라이브를 통해 릴리티티 ‘슈퍼리턴즈’를 선보이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은혁이 제대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컴백에 대한 희의를 펼치며 새 앨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멤버들은 A&R, 안무, 홍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가하면 타이틀 곡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SNS 관리, 지각하지 않기, 노래와 춤 연습 등 컴백 규칙까지 정했다. 2년만의 컴백인만큼 남다른 의지와 각오를 다진 것이다. 그동안 슈퍼주니어의 공백기는 길었지만 멤버들의 개개인 활동은 빛났다. 김희철은 JTBC ‘이혼형남’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이특 역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의 MC로 두각을 나타냈다. 예성은 솔로앨범으로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으며 은혁, 신동, 동해 역시 예능, DJ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최시원은 지난 14일 첫 방송된 tvN ‘변혁의 사랑’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정규 8집으로 봉탄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슈퍼주니어는 이번엔 장수 그룹으로서 어떤 호성적을 남기게 될지, 11월 8일이 기다려진다.

외로운 사람들 위로하는 ‘솔라감성’

마미무 솔라가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리메이크 앨범으로 돌아왔다. 솔라는 17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앨범 ‘솔라감성 Part.5’의 타이틀곡 ‘외로운 사람들’과 수록곡 ‘가을편지’의 음원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외로운 사람들’은 1988년 이정선이 발표한 곡으로 포크락 장르인 원곡과는 사뭇 다른 아날로그 감성의 EP 멜로디가 주축이 된 서정적인 편곡에 솔라의 외롭고 여운 짙은 보이스가 더해져 가사가 가진 고풍하고 쓸쓸한 정서를 오롯이 표현해냈다. 또한 이번 앨범의 수록 곡인 김민기의 ‘가을편지’는 그동안 수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리메이크 되어온 명곡이다. ‘솔라감성’을 통해 재탄생된 ‘가을편지’는 담백한 기타 선율에 곡의 중반부터 서서히 등장하여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리얼 스트링 시운드와 편지를 읽어 내

는 듯 읊조리는 솔라의 보컬이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힐링을 주기에 최적화 된 곡이다. 솔라는 ‘솔라감성’ 프로젝트를 통해 잊혀진 명곡들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색깔과 감성으로 표현, 부모님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컬리스트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정서를 오롯이 표현해냈다. 또한 이번 앨범의 수록 곡인 김민기의 ‘가을편지’는 그동안 수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리메이크 되어온 명곡이다. ‘솔라감성’을 통해 재탄생된 ‘가을편지’는 담백한 기타 선율에 곡의 중반부터 서서히 등장하여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리얼 스트링 시운드와 편지를 읽어 내는 듯 읊조리는 솔라의 보컬이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힐링을 주기에 최적화 된 곡이다. 솔라는 ‘솔라감성’ 프로젝트를 통해 잊혀진 명곡들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색깔과 감성으로 표현, 부모님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컬리스트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음력 8월 29일) ● 惠山 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子鼠 36년생 미련을 버려라.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2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 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丑牛 40년생 외출을 삼가라. 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寅虎 32년생 출입을 삼가라. 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卯兔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49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5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 辰龍 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5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9년생 꿈을 접지 마라.	▶ 巳蛇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 未羊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申猴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 54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인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 酉雞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戌狗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亥猪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있다. 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 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壬子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 마라. 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